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6면)



해외연수보다 민생입니다

송파구의회 박지선 의원 장지동, 위례동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여러 지방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거나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의회도 민생의 어려움에 동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6년도 송파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예산은 1억5,300만 원입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전체 의원의 약 3분의 2가 초선인 만큼, 지금은 해외사례를 살피기에 앞서 송파의 주요 사업과 예산,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첫째, 2026년도 공무국외출장비 1억5,300만 원을 반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금은 해외보다 송파를 먼저 살피고 공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 목적과 정책과제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수가 돼야 합니다. 주민의 세금을 소중히 사용하고 민생을 살피는 송파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